

신학전공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조소영¹ · 이희수²

¹중앙대학교 석사, ²중앙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매개효과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 신학전공 대학생 중 목회실습 경험이 있는 364명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신학전공 대학생이 진로소명을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명,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신학전공 대학생

논문접수: 2021년 7월 5일, **논문심사:** 2021년 8월 12일, **게재승인:** 2021년 8월 23일

Corresponding to 이희수, heesu@cau.ac.kr

조소영(2021)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변혁의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일과 학습은 삶의 양대 기둥이자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 오늘날 일과 학습 간의 경계는 희미해지거나 무너졌으며, 학습은 또 다른 형태의 일로 되어가고 있다. 사회변화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의 심화에 따라 기술과 교육 간의 경쟁이 심화 되는 추세이다(OECD, 2019; WEF, 2018a). 인간은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 주기 단계에 따른 생애 과업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습과업이 제기되고 역할 수행을 위한 학습을 요구받게 된다(Dave, 1973; 강미영, 2020).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학교에서 직업 세계

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생애 전환의 시기로(진현준, 이기학, 2020; 홍아정, 황은희, 조윤성, 김용주, 최미옥, 2017)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발달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이다(손병기, 우현아, 이희수, 2019). 그러나 Arnett(2000)의 초기 성인의 표현과 우리나라 청년 고용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학생기는 성인기 이행의 지체 현상을 반영하는 청소년과 성인기 사이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바라볼 수 있다.

2020년 8월 5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시행에서 보듯이, 청년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김태환, 2019) 정책의 관심사가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4%였던 청년



실업률이 10년 사이 8.9%로 증가하여(통계청, 2020), 청년 취업난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부의 양극화, 저성장 시대 등 경쟁과 압박에 직면한 대학생들은(권진희, 김진희, 이희원, 2020)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형성을 하지 못한 채 취업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정체성 형성과 성찰이 결여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은 직업인으로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진로에 대한 성찰 없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써 진로는 퇴사, 잦은 이직, 부적응 등 다양한 진로문제로 연결된다. 진로교육 분야에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김소연, 2017).

소명과 신앙 등 내적 신념을 기반으로 진로 정체성을 비교적 높게 확립한다는 신학전공 대학생 또한 진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문영숙, 2018). 특화된 진로를 가지는 전공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53%만이 졸업 이후 목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김상구, 이승진, 2016), 신학전공 대학생의 94.8%가 진로 및 취업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태신, 2018).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상구, 이승진, 2016; 안병덕, 2019).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진 21세기의 직업 세계에서는 다양한 진로위기 양상이 나타난다. 대응 여하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기술변화, 학습진화, 인재 이동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진로 대응 시나리오가 마련되고 있다(WEF, 2018b). 다양한 진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공별 차이점에 근거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이재홍, 2015).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 확립 부족이 진로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신앙과 소명을 기반으로 진로라는 생애 과업을 실현해나가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를 연구해 볼 만하다(문영숙, 2018). 이러한 신학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염두에 둘 때,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변인으로 소명(calling)이 떠오른다(라영안, 김혜민, 2019).

소명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 적응 및 성공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양난미, 이은경, 2012; 정지애, 강혜영, 2018). 종교적 용어로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신의 부름(The call of God)’을 받았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Hardy, 1990). 그러나 현대에는 소명을 종교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일과 진로에서 목적, 의미를 지각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며, 일과 진로를 통해 사회 공공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려는 태도로 이해한다(한주원, 2019; Duffy & Dik, 2009; Hall & Chandler, 2005).

소명에서 종교적·세속적 관점을 포괄하여, 보다 확장되고 체계적 정의를 제시한 Dik과 Duffy(2009)는 소명이란 자신을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초월적 부름의 체험이며, 삶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태도와 이타적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갖는다고 설명하였다(Dik & Duffy, 2009). 이 관점에서 소명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삶에서 특정한 역할에 대한 동기가 외부로부터 온다고 자각하는 초월적 부름, 둘째는 진로와 일에 관련된 활동을 더 포괄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에 연결하는 목적/의미, 셋째는 사회의 안녕과 공익을 위해 긍정적 기여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지향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명을 일과 관련된 태도로 정의(Dik, Sargent, & Steger, 2008; Lips-Wiersma, 2002)하며, 소명의식을 과업 행동을 증진시키는 높은 수준의 몰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Hagmaier & Abele, 2012). 자신의 진로와 일에 있어 소명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신념을 더 많이 갖는다고 보고하였으며(Davidson & Caddell, 1994), 소명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직업군에서도 소명을 높게 나타낼수록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일하려는 경향을 높게 보였다(Lips-Wiersma, 2002).

선행연구에서는 일에서의 소명은 심리적 성공과 일 관련 상관을 나타내며, 경제적 수입, 승진과 같은 객관적 성공의 선행요인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Hall & Chandler, 2005). 일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기개념, 진로 정체성, 자기효능감과 같이 ‘나’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과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며(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Galles & Lenz, 2013, Hall & Chandler, 2005), 진로를 결정하고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에서 소명과 같은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촉진하기 까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유능감이 필요하다(라영안, 김혜민, 2019; 신윤정, 2013). 신뢰와 유능감을 측정하는 변인으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변인이다(송윤정, 조규판,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 정도를 말한다(Taylor & Betz, 1983).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 직업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Betz & Hackett, 1981), 진로 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Lent & Hackett, 1987)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태도성숙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진로발달 촉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김기홍, 이경희, 2020; 김지연, 이기학, 2014; 김향희, 최바울, 2017; 박주현, 유성경, 2012; 이성식, 2007;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Betz & Voyten, 1997; Taylor & Popma, 1990). 선행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준비를 활발히 한다는 결과를 확인해준다(고태용, 2008; 김혜주, 도승이, 2009; 양진희, 김봉환, 2008; Blustein, 1989; Choi & Kim, 2013).

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중요 요인이다.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구체적 행동을 의미한다(홍민아, 유정애, 2020).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되며, 진로설계와 취업준비 정도를 개인

의 행동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한다(이종찬, 홍아정, 2013).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 이후 실행하거나 몰입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결정하거나 대안 중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대안을 좁혀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삶에서 몰입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까지 하는 요인이다(정유선, 박미연, 2017). 단순히 취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구직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 개념이다(박현우, 김희림, 2020; 이예진, 이기학, 2010).

직업으로 입문을 앞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문승태, 박미하, 201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본격적 직업 세계로 이행을 준비하며 개인의 진로결정에 많은 관심 가지게 되는 시기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전공만족도, 심리적 독립, 진로장벽과 같은 진로에 직접 관련된 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구영애, 박수진, 안성식, 2020; 김선중, 2005; 양진희, 김봉환, 2008; 이정민, 조보람, 2015; 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주명진, 김정남, 2011).

개인의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과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이라는 특성을 갖는다(서보람, 2016). 대학생 시기 진로발달 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방법으로(송영희, 2017)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권진희, 김진희, 이희원, 2020).

개인이 느끼는 일과 진로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진로소명과 진로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를 준비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해 측정하는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의 과거 경험, 개인적 특성과 배경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진로모델이다(Brown & Lent, 2020). 사회인지진로이론 중 선택모델은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학습경험, 자기효능감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로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소명은 개인적 배경임과 동시에 학습경험으로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Domene, 2012).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이봉주, 김영빈, 2017; 라영안, 김혜민, 2019), 진로소명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 준비 및 결정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박주현, 유성경, 2012; 배무련, 김판희, 2015; 신윤정, 2013; Dik, Sargent, & Steger, 2008; Duffy & Sedlacek, 2007).

진로소명은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Duffy & Sedlacek, 2007; Dik, Sargent, & Steger, 2008; Hirschi & Herrmann, 2013). 국내 성인 여성 학습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진로소명을 높게 의식할수록 구체적 진로 준비를 더 높게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소연, 2017; 김영빈, 함은혜, 김태선, 2018; 서요한, 임재원, 정보영, 2019; 신미경, 김희수, 2017).

개인의 내적 요인은 진로에서의 목표 수행 및 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변인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를 준비하는 구체적 행동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태용, 2008; 문학선, 김양균, 2020; 서보람, 이기성, 2018; 양진희, 김봉환, 2008; 염태영, 2016; 주명진, 김정남, 2011).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진로준비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에서 진로소명이 미치는 영향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진로소명을 구체적 준비행동으로 촉진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에서 진로소명을 높게 의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신학전공 대학생(김난예, 2003)을 대상으로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각 변인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신학대학 재학 동안 자신의 진로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바람직한 진로준비행동을 함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교육학적 논의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에서 발간한 ‘2018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74	45.9
	여자	191	50.7
학년	1학년	104	27.6
	2학년	55	14.6
	3학년	64	17.0
	4학년	142	37.4
목회실습기간	1년 미만	198	52.5
	1년 이상 ~ 2년 미만	66	17.5
	2년 이상 ~ 3년 미만	29	7.4
	3년 이상	72	19.1

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제시된 개신교 4년제 대학 중 기독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신학과, 선교학과 등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학과에 재학 중이며, 실제 일 경험의 일종인 '목회실습'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학관련 학과에 재학하며, 목회실습 경험이 있는 365명에게 설문문을 받았다. 연령분포의 경우 만 19세가 87명(23.9%), 만 24세가 45명(12.4%)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소속 교단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21.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14.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진로소명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심예린(2010)이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사용하였다. CVQ 척도는 Dik과 Duffy가 2008년 개발한 것으로 '소명-존재'와 '소명-추구' 각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여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심예린과 유성경(2012)의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소명-존재'의 3가지 요인만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월적 부름(4문항), 친사회적 지향(4문항), 목적/의미(4문항)의 3가지 하위척도로 심예린(2010)이 타당화하고, Likert 4점 척도를 한주원(2019)이 Likert 5점 척도로 변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초월적 부름에 대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이끌려 현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가 있으며, 친사회적 지향에는 '내 진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데 있다.', 목적/의미에는 '나는 진로를 삶의 목적으로 이끄는 길로 본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초월적 존재 .857, 목적-의미 .831, 친사회적 지향 .706으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는 .881로 나타났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의 CDMSES 측정도구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에서 이은진(2002)이 변안하였고, 이종찬(2013)이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측정에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자기평가(5문항), 직업정보수집(5문항), 문제해결(5문항), 목표설정(5문항), 진로계획(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내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의 Cronbach's α 는 .969로 나타났다.

다. 진로준비행동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도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척도를 변형하여 총 17 문항으로 탐색행동(12문항)과 준비행동(5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를 활용하였다(고태용, 2008). 측정문항으로는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별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 신뢰구간은 편의 교정 신뢰 구간(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정규 분포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보다 크고, 첨도는 7보다 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에 따라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의 절댓값(.27~1.21)과 첨도의 절댓값(.46~1.70)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독립변인인 진로소명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046< r <.153),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11< r <.085). 아울러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583).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초월적 존재	4.04	.90	-1.21	1.66
목적_의미	4.24	.73	-1.18	1.70
친사회적 지향	3.86	.72	-.27	-.49
진로소명	4.05	.65	-.84	1.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02	.77	-1.21	.77
진로준비행동	3.96	.92	-.75	-.46

<표 3>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 초월적존재	1					
2. 목적-의미	.676**	1				
3. 친사회적지향	.390**	.525**	1			
4. 진로소명	.857**	.880**	.746**	1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46	.109*	.153**	.118*	1	
6. 진로준비행동	.011	.040	.085	.052	.583**	1

*p<.05, **p<.01

2.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분석

가. 측정모형검증

진로소명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표 4>와 같이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검증에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의 검증과 구조모형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모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흥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CFI, TLI, RMSEA를 확인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며(흥세희, 2000), RMSEA는 .05이하

이면 아주 좋은 모형, .05이하면 좋은 모형, .10이하이면 보통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Browne & Cudeck, 1993).

<표 4>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연구모형의 경우 CFI는 .963, TLI는 .948, RMSEA는 .094로써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 역시 CFI는 .963, TLI는 .950, RMSEA는 .092로써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Delta\chi^2(1)=.131, p>.05$),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및 타당도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53에서 .962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LO90 HI90)
연구모형	134.068***	32	4.190	.948	.963	.094 (.078 .110)
경쟁모형	134.199***	33	4.067	.950	.963	.092 (.076 .108)

***p<.001

<표 5>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및 타당도 검증결과

잠재변인	→	잠재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CR	AVE	CR
			B	SE				
진로소명	→	초월적존재	1.000		.711			
	→	목적-의미	1.095	.107	.950	10.256***	.571	.792
	→	친사회적 지향	.626	.062	.553	10.05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자기평가	1.000		.755			
	→	직업정보수집	1.463	.075	.928	19.422***		
	→	목표설정	1.510	.079	.917	19.136***	.741	.934
	→	진로계획	1.635	.082	.951	19.982***		
진로준비 행동	→	문제해결	.945	.065	.728	14.539***		
	→	탐색행동	1.000		.962		.866	.928
	→	준비행동	.989	.046	.898	21.654***		

***p<.00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을,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를 확인한 바, 평균분산추출은 .5, 개념신뢰도는 .7이상으로 산출되어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cker, 1981; Anderson & Gerbing, 1988).

나.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진로소명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나($\beta=.117, p<.05$), 종속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6, p>.05$).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0,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이른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 및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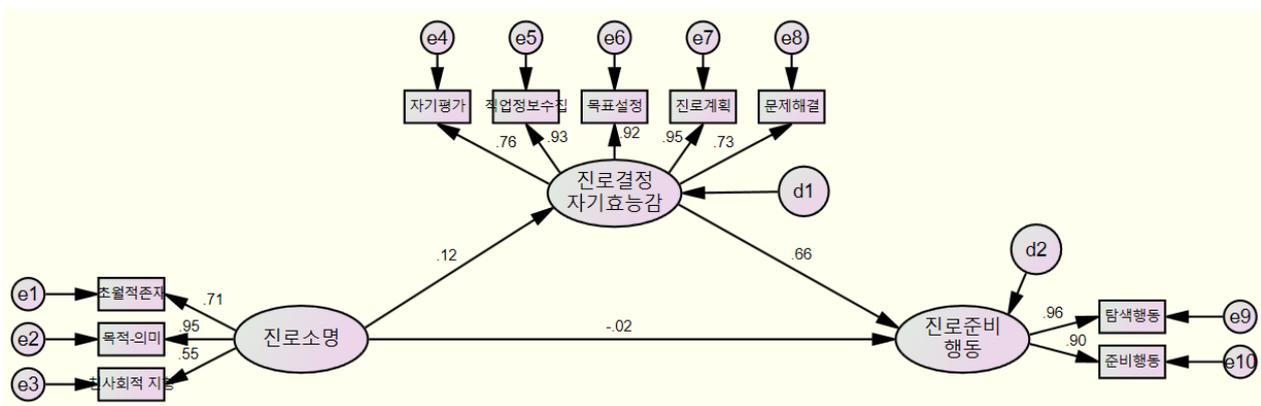
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주요변인간 직접·간접·총효과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진로소명은 진로준비 행동에 대해 총효과 .061($p>.05$), 직접효과 $-.016(p>.05)$ 로 나타났다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077(p<.05)$ 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표 6>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B	S.E.	β	t
진로소명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4	.050	.117	2.075*
진로소명 → 진로준비행동	-.023	.062	-.016	-36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035	.084	.660	12.383***

* $p<.05$, *** $p<.001$



[그림 1] 최종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표 7>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표준화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소명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17*		.117*
진로소명 → 진로준비행동	-.016	.077*	.06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660**		.660**

* $p<.05$, ** $p<.01$

결정 자기효능감이 보이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본 추출을 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서 자유롭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2,000번을 실시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에 대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진로소명→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간접효과는 0을 포함하지 않아서 (.011~.175)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한 연구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소명의 하위요인인 초월적 존재,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소명 전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을 가진 대학생이 진로에 있어 더욱 행동 지향적이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라영안, 김혜민, 2019; Hirshi, 201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되었던 일반 대학생과 달리 신학전공 대학생의 소명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Dik, Douglass, Duffy, England와 Velez가 제시한 WCT 모형(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WCT 모형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진로 문제에서 소명을 의식하는 것과, 이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진로에서 인식한 소명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비 신학전공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소명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신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종운, 김현희, 2016; 라영안, 김혜민, 2019; 석혜정, 이종숙, 2016; 조영아, 정지은,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비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기존의 결과가 신학전공 대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이 실제 진로준비를 촉진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ndura(1997)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기술이나 경험 그 자체가 아닌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효능감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성공적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성인 초기 단계인 대학 재학 동안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 형성이 요구된다. 대학 시기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진로에서의 효능감을 향상하고, 진로준비 촉진을 통해 성공적인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도와야 한다. 대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주현, 유성경, 2012; 이희정, 김금미, 2010; 조영아, 정지은, 2017). 신

학전공 대학생 또한 다른 대학생과 동일하게 자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진로와 일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 수행을 한다는 소명을 높게 의식할 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이 증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명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가장 강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일과 진로의 동기를 내적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라영안, 김혜민, 2019; 배무련, 김판희, 2015; 심예린, 2010; 오수진, 2011). 이러한 결과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있어 외부의 개입과 압박보다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신학전공 대학생의 내적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직접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는지라도 소명의 모든 하위요인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영안, 김혜민, 2019; 박주현, 유성경, 2012; 신윤정, 2013).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신학전공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진로 행동과 선택에 환경요인, 개인적 특성, 학습경험, 흥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Brown & Lent, 2020). 신학전공 대학생의 구체적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명을 의식하는 것 외에도 진로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과 믿음 등의 요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명을 측정하는 척도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문항에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심예린, 유성경,

2012)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 경험인 목회실습 경험을 가진 신학전공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을 선별하여 측정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더욱 세밀한 측정을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특화된 문항을 통해 더욱 세밀한 측정이 요청되며, 일 경험이 적은 대학생의 소명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민지현, 강에스터, 이혜주, 2017).

두 번째,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만의 진로 특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특화된 진로를 가졌던 전공에 대한 진로 특성과 전공 별 차이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각 전공 진로 특성을 파악하여 전공에 맞게 특화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신학전공 대학생의 소명이 실제 진로준비행동까지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Dik, Douglass, Duffy, England, & Velez, 2018). 신학생들의 대다수는 적성, 장래성보다는 신앙적 동기, 소명을 가지고 신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김종희, 1998). 이러한 신학생들의 소명의식이 진로준비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여 미래 종교지도자들의 영적, 지적, 심리적 발달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황병배, 안병덕, 2017).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살핌으로써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증진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전문성 있는 진로준비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강미영 (2015).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취업**

- 진로연구**, 10(3), 23-47.
- 고태용 (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영애, 박수진, 안성식 (2020). 대학생의 전공 선택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2), 45-70.
- 권진희, 김진희, 이희원 (2020). 사회문화적 자본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 양상 분석. **열린교육연구**, 28(2), 341-370.
- 김기흥, 이경희 (2020).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핵심역량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28(4), 117-143.
- 김난예 (2003). 신학생들의 자존감과 삶의 목적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32(1), 237-266.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6.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구, 이승진 (2016). 2015년 한국 신대원생들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이해: 아이굿뉴스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1, 39-71.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연 (2017). 대학생의 소명의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와 학업몰두,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9(1), 137-154.
- 김영빈, 함은혜, 김태선 (2018). 성인여성학습자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명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803-822.
- 김종운, 김현희 (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97-814.
- 김종희 (1998). 신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환 (2016). 대학생의 소명과 학과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49-264.
-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향희, 최바울 (2017). 남녀대학생의 성역할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4), 113-130.
- 김혜주, 도승이 (2009).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중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교심리와 학습권설형**, 1(2), 15.
- 네이버 지식백과 (n.d.). 신학생, 신학전공. <https://terms.naver.com/list.nhn?cid=50762&categoryId=51367>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라영안, 김혜민 (2019). 대학생의 소명의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2(3), 85-108.
-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문영숙 (2018). 신학전공대학생의 진로갈등 경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학선, 김양균 (2020).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3), 91-119.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민지현, 강에스터, 이혜주 (2017). 소명의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소명실행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0(4), 491-516.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박현우, 김희림 (2020). 체육전공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2), 63-77.
- 배무련, 김판희 (2015). 기독교소년의 사회적 지지, 신앙성숙, 소명의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42, 331-358.
- 서보람 (2016).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보람, 이기성 (2018).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7(1), 87-116.
- 서요한, 임재원, 정보영 (2019). 간호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선택몰입의 매개효과와 대학생활적응의 조절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2(3), 265-284.
- 석혜정, 이종숙 (2016). 뷰티 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대한미용학회지**, 12(4), 357-366.
- 손병기, 우현아, 이희수 (2019).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대학생의 성찰학습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5), 371-396.
- 송윤정, 조규판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 신미경, 김희수 (2017). 대학생의 진로소명의식,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4), 131-148.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심예린 (2010). 한국판 소명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예린, 유성경 (2012). 한국판 소명 척도(CVQ-K)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47-872.
- 안병덕 (2019). 신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학과만족도, 실습만족도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9), 151-163.
- 양난미,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2.
- 염태영 (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수진 (2010). 신앙성숙수준 및 소명의식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주, 김영빈 (2017). 고등학생의 소명의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7(1), 223-242.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예진, 이기학 (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홍 (2015). 인문학 전공자의 위기를 통한 융합교육의 방향성 고찰. **한국계임학회 논문지**, 15(4), 207-216.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찬, 홍아정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1), 69-92.
- 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대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적 독립과 진로신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3), 21-33.
- 이희정, 김금미 (2010). 진로상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정미예 (2008). 대학생의 진로장애 예기와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27(3), 181-199.
- 정유선, 박미연 (201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8(4), 165-184.
- 정지애, 강혜영 (2018). 진로와 직업 분야 소명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현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8(4), 119-145.
- 조영아, 정지은 (2017).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0(3), 129-150.
-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6(4), 25-47.
- 진현준, 이기학 (2020).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7(1), 125-144.
- 통계청 (2020). 고용동향. <https://www.kostat.go.kr>에서 2020년 10월 2일 인출.
- 하태선 (2018). 신학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생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36, 467-494.
- 한주원 (2019). 비서전공 대학생의 소명의식이 진로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심. **비서·사무경영연구**, 28(4), 53-79.
- 한희원, 문경숙 (2017).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845-866.
- 홍민아, 유정애 (2020). 체육계열 여대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1), 135-147.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아정, 조윤성 (2012). 경력단절 여성의 감성지능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 연결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3), 35-61.
- 홍아정, 황은희, 조윤성, 김용주, 최미옥 (2017). 대학생의 성찰학습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6(4), 1-2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

- 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JHP*, 12(1), 8-10.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6).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NY: Harper & Row.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94-203.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hoi, K., & Kim, D. Y. (2013). A cross cultural study of antece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 Tourism Education*, 13, 19-32.
- Dave, R. H. (1973). *Lifelong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 Davidson, J. C., & Caddell, D. P. (1994). Religion and the meaning of work.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2), 135-147.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August).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1), 23-41.
- Domene, J. F. (2012). Calling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81-292.
- Duffy, R. D., & Dik, B. J. (2009).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8(1), 29-43.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Torrey, C. L., & Dik, B. J. (2012).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esting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50-59.
- Duffy, R. D., Dik, B. J., Douglass, R. P., England, J. W., & Velez, B. L. (2018). 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4), 423-439.
- Elangovan, A. R., Pinder, C. C., & McLean, M. (2010). Calling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3), 428-440.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ttps://doi.org/10.2307/3151312>
- Hagmaier, T., & Abele, A. E. (2012). The multidimensionality of calling: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 b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1), 39-51.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 Hardy, L. (1990). *The fabric of this world: Inquiries into calling, career choice, and the design of human work*. MICHIGAN, MI: Wm. B. Eerdmans Publishing.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irschi, A., & Herrmann, A. (2013).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Investigating developmental patterns and temporal preced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1), 51-60.
- Hunter, I., Dik, B. J., & Banning, J. H. (2010).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calling in work and life: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178-186.
- Lent, R. W. (2020).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189-232). New Jersey, NJ: John Wiley & Sons.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ips-Wiersma, M. (2002). The influence of spiritual “meaning-making” on career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1*(7), 497-520.
- OECD (2019).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Paris: OECD.
- Praskova, A., Creed, P. A., & Hood, M. (2015).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career calling scale for emerging adul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91-10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doi:10.1037/1082-989X.7.4.42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1), 17-3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orld Economic Forum (2018a). *Towards a reskilling revolution: A future of jobs for all*. insight report.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 World Economic Forum (2018b). *Eight futures of work: Scenarios and their implications*. insight report.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ABSTRACT

The Effect of The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s Call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Jo Soyoung¹, Lee Heesu²

¹Master's degree, Chung-Ang University, ²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ether the three sub-factors of calling; transcendent summons, purpose/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so,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each sub-factor of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Based on the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transcendent summons, purpose/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t the theology major student experienced. 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t the theology major student experienced. 3. Identification whether the theology major student's three sub-factors of calling; transcendent summons, purpose/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can mediat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r not.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theology who experienced pastoral practice.

Results Finally, a total of 364 samples were used for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v.22.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v.26.0. All three sub-factors that the theology major student perceived,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all the sub-factors of the student's calling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urthermor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positi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so,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complete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types of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clus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is study presented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the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be done to provide practical and concrete plans for theology majo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rough verification of relationships with various variable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Calling, The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